

화학산업, 순이익 비중 급속 확대

증권선물거래소, 6.50%에서 18.10%로 ... 상위 10사 비중 심화

화학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.

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, 전기전자산업이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66.61%에서 2005년 3/4분기 누적 24.85%까지 낮아진 반면 철강금속은 14.28%에서 24.50%로, 화학은 6.50%에서 18.10%로 증가해 상위업종의 편차가 좁아지고 있다.

상장기업 영업이익의 상위 10사의 영업이익 비중이 전체 영업이익의 70%를 차지하는 등 영업실적의 상위사 쏠림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금융업종 등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328사의 2005년 3/4분기 누적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의 상위 10사의 비중이 전체의 69.13%를 차지했다.

상위 10사의 비중은 2000년 59.81%에서 2001년 50.73%로 축소된 이후 2002년 60.26%, 2003년 61.97%, 2004년 70.74%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.

순이익의 상위 10사 편중 현상도 심해져 2000년 40.50%에서 꾸준히 높아져 2004년 62.73%, 2005년 3/4분기 65.80%까지 확대됐다.

반면, 매출액 상위 10사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5.66%, 2002년 53.37%, 2005년 3/4분기까지 51.43%로 축소됐다. (서울=연합뉴스 고미혜 기자) <저작권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3/17>